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옥경희** 김미혜***

The Effects of Parenting Beliefs and Supportive Interaction on
Mothers' Parenting Stress of Young Children: Variations by Income
Level and Employment Status

Ok, Kyung hee Kim, Mee hae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한국아동패널3차에 참가한 23-31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로 분류한 4개 집단(낮은소득-비취업, 낮은소득-취업, 높은소득-비취업, 높은소득-취업)에 해당하는 770명이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4개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높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도구적 가치와 성취기대, 인성에 대한 강조가, 낮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도구적 가치가, 높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가치와 성취기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취업여부와 가구소득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주제어 :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 가구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

* 이 연구는 2015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전 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meehae6714@naver.com)

I. 서론

자녀를 갖는다는 일은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도 함께 갖게 되는 일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정신적 반응(negative mental response)이라고 정의된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때 겪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반응이다(Cooper, McLanahan, Meadows, & Brooks-Gunn, 2009). 부모가 자녀양육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Crnic & Greenberg, 1990; Crnic & Low, 2002).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이나 자녀교육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높은 양육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율상승이 국가의 현안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양육스트레스는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과제로까지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Abidin, 1990). 가정의 환경적 요인 중 많은 관심을 받은 요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인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인적, 사회적 자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Burke, Chandy, Dannerbeck, & Watt, 1998). 양육스트레스 역시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와 비교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더 높았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Joshi & Bogen, 2007).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김은설, 도남희, 2012; 옥경희, 천희영, 2012; 임현주, 이대균, 2013; 정안나, 2007).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박윤미, 2002; 차삼숙, 2005).

부모의 양육신념(parenting beliefs)이란 자녀에 대한 가치와 목표, 기대와 더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지적 요인으로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ovchanska, Cuczynsky, & Radkr-Yarrow, 1989; Miller, 1989). 양육신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김춘자, 2009; 송승민, 송진숙, 2007; 송연숙, 김영주, 2007; 옥경희, 천희영, 2012; 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일부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신념은 양육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승민, 송진숙, 2007; 송연숙, 김영주, 2007; 옥경희, 천희영, 2012; Crnic & Booth, 1991). 양육신념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개념이나 내용이 양육신념(송승민, 송진숙, 2007; 송연숙, 김영주, 2007)으로 넓게 표현되지만, 자녀관 혹은 자녀가치(김춘자, 2009; 옥경희, 천희영, 2012; 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양육가치 혹은 양육관(송연숙, 김영주, 2007), 양육책임(송승민, 송진숙, 2007; Crnic & Booth, 1991)과 같은 구체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양육신념 중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양육스트레스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춘자, 2009; 옥경희, 천희영, 2012). 어머니가 자녀의 가치를 도구적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높다고 인식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옥경희, 천희영, 2012).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자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춘자, 2009). 어머니가 갖는 양육가치나 기대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송연숙, 김영주, 2007).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격, 사회성, 소질을 중시하는 인성집단보다 공부나 사회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적성취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송연숙, 김영주, 2007). 부모가 자녀들에게 독립적 혹은 순응적 행동을 장려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승민, 송진숙, 2007).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감을 높게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Crnic & Booth, 1991).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윤 외, 2012; 양미선, 김양은, 2012; 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정미라, 이방실, 권정윤, 박수경, 강은영, 2012).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권정윤 외, 2012) 혹은 상호작용에 적극적 참여할수록(양미선, 김양은, 2012)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어머니가 야단을 치거나 재촉하거나 신경질을 내는 것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양육스트레스도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정미라 외, 2012).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가구소득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들을 통해서 소득수준과 자녀가치(옥경희, 천희영, 2012; 임현주, 이대균, 2013), 혹은 양육가치나 기대(김경혜, 1994; 임현주, 이대균, 2013; Piff, Kraus, Cote, Cheng, & Keitner, 2010; Ryna & Stipek, 1997), 양육책임(Elder, Eccles, Ardel, & Lord, 1995)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정서적 혹은 도구적 가치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옥경희, 천희영, 2012).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차이를 보였는데 성공하거나 명예를 갖기 원하는 도구적 가치는 중간 소득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더 낮았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 등의 정서적 가치는 소득이 높은집단보다 중간집단이 그리고 중간집단 보다는 낮은집단의 점수가 더 낮았다(임현주, 이대균, 2013).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독립심에서는 높은 소득집단의 부모들이 낮은 소득집단보다 더 높았다(김경혜, 1994).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저소득층 집단과 비교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조적이거나 우호적인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인적 자원인 타인과의 협조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Piff et al., 2010; Ryna & Stipek, 1997). 또한 낮은 소득집단의 부모들은 높은 소득집단의 부모들과 비교하여 자녀발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통제력이 더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낮거나 중간집단의 어머니보다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한나, 박혜원, 2013).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가정 부모와 비교해 비일관적이며 비온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임세희, 2007), 애정적 상호작용을 더 적게(민하영, 2011)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영유아 부모의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이나 자녀의

관심이나 흥미에 대한 반응에서 저소득 가정이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김명순 외, 2010; 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5). 일반 가정 어머니가 애정, 반응, 상호적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양육이나 사건이나 여러 사물의 특성에 대해 인식을 자극시키고 탐색,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적 양육을 저소득 가정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보여주었다고 보고한다(안현숙, 20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신념이나 지지적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신념이나 지지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가치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두 변인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옥경희, 천희영, 2012). 낮은 소득집단과 중간 소득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으나, 중간소득 집단에서만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모역할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결과(Koen, 2014)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전춘애, 박성연, 1996), 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거나(백영숙, 2007; 최은정, 2012;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 혹은 비취업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손수민, 2012; 이정림 외, 2011)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과 놀이신념을 살펴본 연구결과들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비취업 어머니들이 취업 어머니들 보다 놀이중심에 대한 신념이 높게 나타났으나(최은정, 2012), 취업 어머니들이 비취업 어머니들보다 놀이중심 신념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신혜경, 2009). 어머니의 취업이 인성과 학습, 성숙과 환경에 대한 양육신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와 개인에 대한 양육신념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개인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한다(고윤희, 2001). 어머니의 과거에는 어머니의 취업이 기혼여성의 배우자와 부모역할에 일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시켜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인다는 주장에(Rutter, 1981)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머니의 취업이 역할부담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이 기혼여성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낮춘다는 주장이(McBride, 1990)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구소득이나 취업여부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두 변인을 함께 사용할 때 드러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연구들이(박윤미, 2002; 차삼숙, 2005) 취업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예이다. 한 최근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비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가(손수민, 2012),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보다 가구수준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옥경희, 천희영, 2012; 임현주, 이대균, 2013)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직선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Hoff, Larusen, & Tardif, 2002). 일부 연구들은 가구소득이나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Hoffman & Youngblade, 1999, Gottfried, Gottfried, & Bathurst 2002에서 재인용), 가구소득과 취업을 고려하여 결혼과 동거에 대한 경향(Kuperberg, 2012), 혹은 어머니의 취업과 성격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Forays et al., 2001)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해의 폭이 확장된다고 설명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구소득이나 취업여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변인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여부와 소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두 변인을 함께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이나 지지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서도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은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2010)의 3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한 23-31개월의 영유아의 어머니 1,579명이다. 이들은 결혼상태가 유배우이며 초혼이고 가족과 동거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로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선택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 1,579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취업모에 대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의 25% 이하를 차지하는 집단은 단지 9.6%만 차지하였고, 중간집단이나 높은 집단의 비율은 45%와 46%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제일 높은 비율이 대학교 졸업 집단으로 취업모 집단의 4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으로 25.7%,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집단이 21.1%, 대학원 이상이 9.1%의 순이었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82.7%, 조부모와 부부, 자녀가 12.4%, 그 외의 가구형태가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아보다 0.8% 낮았다. 자녀의 순위는 첫째가 46.5%, 둘째가 44.1%, 셋째 이상이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수준은 중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반 이상인 5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25% 이하인 집단으로 33.6%, 소득이 높은 집단은 12.0%에 불

과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졸업이 제일 많은 분포인 39.0%였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교 이하로 33.0%, 전문대졸이 24.5%, 대학원 졸업은 3.5%에 불과하였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91.8%, 조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5.8%를 차지하였고, 기타의 형태는 2.4%였다. 성별은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아보다 0.4% 높았다. 영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6.1%, 둘째가 42.0%, 셋째 이상이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취업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579)

변인	내용	취업(N=508)		비취업(N=1,071)	
		N	%	N	%
소득수준	하(25% 이하)	49	9.6	360	33.6
	중(26-75%)	227	44.7	582	54.4
	상(76% 이상)	232	45.7	129	12.0
가구형태	부부+자녀	420	82.7	983	91.8
	조부모+부부+자녀	63	12.4	62	5.8
	부부+자녀+친척	5	1.0	40	0.9
	기타	20	3.9	16	1.5
모학력	고등학교 이하	99	21.1	332	33.0
	전문대	121	25.7	246	24.5
	대학	207	44.1	392	39.0
	대학원	43	9.1	35	3.5
자녀성별	남	252	49.6	555	51.8
	여	256	50.4	516	48.2
자녀 출생순위	첫째	236	46.5	494	46.1
	둘째	224	44.1	450	42.0
	셋째 이상	48	9.4	127	11.9

* 계는 결측값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음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한국아동패널 2010년 3차년도 연구대상에게 적용한 연구도구이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토대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2) 양육신념(Parenting Beliefs)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의 가치, 성취기대, 양육가치, 양육책임을 통해서 살펴보고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이삼식 외(2005)에서 사용한 자녀가 갖고 있는 정서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의 가치는 정서적 가치를 측정하는 3문항과 도구적 가치를 구성하는 4문항 모두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원 척도의 응답은 1점 ‘전적으로 찬성’에서 4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정서적 가치 .70, 도구적 가치 .73 이었다.

(2) 성취기대: 성취기대는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중에서 도구적 영역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NWEC)에서 사용하였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하게 문항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미래기대는 ‘돈을 잘 번다’와 같은 도구적 가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와 같은 정서적 가치를 구성하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가치를 구성하는 3개의 문항만을 이용하여 성취기대를 살펴보았다. 척도의 응답은 1점 ‘전혀 개의치 않는다’에서 4점 ‘매우 원한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자녀자질: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 중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기를 기대하는 자질의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 척도에서는 11개의 자질과 특성을 제시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5개를 순위 없이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자질 중에서 ‘예의 바름’,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이타심’, ‘어른 말씀 잘 듣기’의 4개 자질을 인성에 대한 기대로 측정하였다. ‘근면함’과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를 근면/검소에 대한 기대로 측정하였다. 어머니들이 각 자질을 선택한 경우 1점, 선택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성 관련 자질 혹은 근면/검소 관련 자질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양육책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기대를 묻는 1문항과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에 관한 문항 중 부모의 책임을 묻는 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모의 책임을 묻는 문항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와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 한 문항을 선택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응답하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의 양육책임을 구성하는 다른 2개의 문항은 부모의 양육지식을 묻는 문항들 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와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를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후 정답의 개수를 이용하여 양육지식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응답한 점수를 1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처리하였다. 양육책임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점으로 분포되었으며 점수가 높은 것은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지지적 상호작용(Supportive Interaction)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Bornstein 등(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도구의 일부인 ‘사회적 양육유형’ 9문항을 이용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지지적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 3개의 문항은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이다.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지적 상호작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인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영아어머니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구소득과 취업여부 집단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구소득과 취업여부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낮은소득-비취업, 낮은소득-취업, 높은소득-비취업, 높은소득-취업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71, p<.001$). 높은소득-취업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정서적, 도구적 가치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미래 성취에 대한 기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2.678, p<.05$).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보다 높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들이 자녀가 미래에 성취하기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강조하는 자녀자질에 대해서는 인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면이나 검소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204, p<.001$). 추후분석 결과에서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의 어머니들은 높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자녀들이 근면하고 검소하게 자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책임에 있어서도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F=4.045, p<.01$),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들이 높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들보다 부모책임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적 상호작용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183, p<.001$).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낮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들은 높은 소득 집단 어머니들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지적 관계를 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득과 취업에 따른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양육행동 차이분석결과 (N=770)

변인	낮은 소득(N=409)		높은 소득(N=361)		F
	비취업(N=360)	취업(N=49)	비취업(N=129)	취업(N=232)	
양육스트레스	31.70(7.04) ^b	30.17(7.21)	30.58(6.99)	29.44(6.70) ^a	4.971 ^{***}
양육신념					
자녀가치					
정서	12.84(1.80)	12.69(2.40)	12.84(1.66)	13.02(1.64)	0.715
도구	11.87(3.08)	11.96(4.33)	11.63(3.01)	11.21(2.94)	2.272
성취기대	8.62(1.76) ^a	8.82(2.26)	9.14(1.72) ^b	8.75(1.71)	2.678 [*]
자녀자질					
인성	7.91(5.48)	8.87(5.48)	7.44(5.00)	8.72(5.70)	1.807
근면	4.39(3.61) ^b	4.24(3.44)	4.36(3.69)	3.17(3.32) ^a	6.204 ^{***}
양육책임	1.52(0.74) ^a	1.69(0.77)	1.67(0.72)	1.73(0.80) ^b	4.045 ^{**}
지지적 상호작용	11.39(1.86)	10.98(1.88) ^a	11.72(1.55) ^b	11.90(1.65) ^b	6.183 ^{***}

* $p < .05$, ** $p < .01$, *** $p < .001$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2. 가구소득과 취업여부 집단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우선 독립변인들간 상호상관관계계수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422로 나타나 .60이상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036에서 1.309로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764에서 .965로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N=770)

	가치:정서	가치:도구	성취기대	자질:인성	자질:근면	양육책임
가치:도구	.410***					
성취기대	.063	.172***				
자질:인성	.052	-.023	-.066			
자질:근면	-.025	.108***	.071	-.211***		
양육책임	.211***	.094**	.013	.011	-.088*	
지지적 상호작용	.228***	.069	-.010	.005	-.050	.12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과 관련된 변인들을 이용하여 살펴본 후, 지지적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소득집단과 높은 소득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비취업과 취업 어머니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표 4>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4>에는 낮은 소득집단에 속한 어머니들 중 비취업과 취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낮은 소득 집단에 속한 비취업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을 구성하는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성취기대, 인성적 자질, 근면한 자질, 양육책임을 투입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신념은 양육스트레스를 13.2%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9.987, p<.001$). 지지적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델은 양육스트레스를 20.8% 설명하였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088, p<.001$). 지지적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7.6% 증가하였고, 설명력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지지적 상호작용($\beta=-0.28$), 자녀의 정서적 가치($\beta=-0.24$), 도구적 가치($\beta=-0.11$), 성취기대($\beta=0.11$), 인성적 자질($\beta=0.1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근면한 자질이나 양육책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따뜻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적게 할수록,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낮게 가질수록, 성취기대가 높고 인성에 대한 자질을 강조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은 21.0%를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F=3.123, p<.01$). 지지적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28.3%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를 4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676, p<.001$).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지적 상호작용($\beta=-0.54$)과 도구적 가치($\beta=-0.36$)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지지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을수록 낮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결과를 <표 4>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 낮은 소득 집단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귀분석 결과 (N=409)

변인	비취업(N=360)						취업(N=49)					
	I단계			II 단계			I 단계			II 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양육신념 (가치)												
정서	-1.15	.22	-.29***	-.93	.21	-.24***	.24	.52	-.08	.28	.41	.09
도구	-.24	.13	-.11	-.25	.12	-.11*	-.87	.28	-.52***	-.60	.23	-.36***
성취기대	.48	.20	.12*	.44	.20	.11*	.68	.45	.21***	.38	.37	.12
(자질)												
인성	.14	.07	.11	.13	.06	.10*	.01	.18	.01	.10	.14	.07
근면	-.03	.10	-.02	-.04	.10	-.02	.04	.28	.02	-.07	.22	-.03
양육 책임	-.44	.49	-.05	-.13	.47	-.01	-1.37	1.34	-.15	-2.02	1.08	-.22
지지적 상호작용				-1.07	.19	-.28***				-2.08	.42	-.54***
constant	44.93	3.09		54.52	3.39		34.16	6.02		56.76	6.64	
F		9.987***			14.088***			3.123**			7.676***	
adjusted R ²		.132			.208			.210			.493	
ΔR^2					.076***						.283***	

* $p < .05$, ** $p < .01$, *** $p < .001$

높은 소득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 중 비취업과 취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높은 소득 집단에 속한 비취업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신념은 양육스트레스를 5.2%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지지적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30.6%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697, p<.001$). 지지적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25.4% 증가하였고, 설명력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높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지지적 상호작용($\beta=-0.52$) 만이 예측을 하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높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표 5> 높은 소득 집단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61)

변인	비취업(N=129)						취업(N=232)					
	I 단계			II 단계			I 단계			II 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양육신념 (가치)												
정서	-1.13	.42	-.27**	-.53	.37	-.13	-1.3	.28	-.34***	-1.0	.27	-.25***
도구	-.05	.24	-.02	-.05	.20	-.02	.7	.15	-.09	.2	.14	-.11
성취기대 (자질)	.34	.37	.09*	.09	.32	.02	-.21	.24	.10	-.26	.23	.12*
인성	-.06	.13	-.04	-.07	.11	-.05	.40	.07	.03	.04	.07	.03
근면	.13	.18	.07	.16	.15	.08	.07	.13	.04	.03	.12	.01
양육 책임	1.28	.88	.13	.91	.76	.09	-1.09	.53	-.13*	-.91	.50	-.11
지지적 상호작용				-2.35	.36	-.52***				-1.3	.24	-.33***
constant	40.27	5.90		62.96	6.11		47.38	3.92		58.38	4.19	
F		2.121			8.697***			8.683***			12.679***	
adjusted R ²		.052			.306			.168			.265	
ΔR^2					.254***						.265***	

* $p < .05$, ** $p < .01$, *** $p < .001$

높은 소득 집단에 속한 취업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양육신념은 양육스트레스를 16.8%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8.683, p<.001$). 지지적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델은 양육스트레스를 26.5% 설명하였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679, p<.001$). 지지적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9.7% 증가하였고, 설명력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높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지지적 상호작용($\beta=-0.33$), 자녀의 정서적 가치($\beta=-0.25$), 성취기대($\beta=0.1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높은소득-취업한 어머니들이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표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 특히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성된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혼부부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어머니를 3개의 소득수준으로 분류한 후 낮은 소득과 높은 소득에 속하는 어머니만을 선택하여 취업여부에 따라서 낮은소득-비취업, 낮은소득-취업, 높은소득-비취업, 높은소득-취업 모두 4집단으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성취기대, 근면한 자질, 양육책임, 지지적 상호작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지지적 상호작용은 4집단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다른 변인들의 영향 정도는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취업여부가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결과(Hoffman & Youngblade, 1999, Gottfried et al., 2002에서 재인용)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 중에서 근면한 자질과 어머니의 양육책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낮은소득-비취업 집단과 높은소득-취업집단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에 따라서 취업의 역할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Hoffman & Youngblade, 1999, Gottfried et al., 2002에서 재인용)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고 하겠다. 즉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 중산층 어머니들 집단에서는 취업이 자원으로서의 효과를 갖지 못하지만, 저소득 어머니들 집단에서는 취업이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의 차이는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들이 높은소득-취업 집단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자녀들에게 근면과 검소할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소득과 취업의 복합적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둔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구소득이나 취업여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단일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소득과 취업을 함께 고려할 때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어머니의 양육소득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일반적 가정이 일부 취업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윤미, 2002; 차삼숙, 2005)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짐작은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대상을 소득과 취업여부의 비율로 살펴보면 높은 소득 집단의 취업모의 비율이 64%이지만(361명에서 232명), 낮은 소득 집단의 비취업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12%(409명중 36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의 치우침은 모집단인

한국아동패널자료의 한계로도 지적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연구대상을 사용한 일부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소득 집단이나 혹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옥경희, 천희영, 2012; 이정림 외, 2011; 임현주, 이대균, 2012)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만을 고려하여 취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더불어 취업의 질이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oeters, Lippe, & Kluwer, 2010). 특히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근무하는 취업의 특성은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거나, 불규칙한 업무시간, 주로 주말이나 야근시간대의 근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부모역할에 부담을 준다고 한다. 결국 취업과 더불어 근무조건은 낮은 소득집단의 부모나 자녀발달에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아직 취업조건과 가족의 소득수준을 반영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밝혀주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미 국외에서는 가구소득이 부모역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는 요인을 찾아내거나(Lee, Lee, & August, 2011), 가구소득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려는(Puff & Renk, 2014)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신념, 지지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밝혀려는 시도에서 더 나아가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변인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양육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들을(김춘자, 2009; 옥경희, 천희영, 2012) 지지한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Crnic & Booth, 199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양미선, 김양은, 2012; 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정미라 외, 2012) 지지하지 않는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양육행동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권정윤 외, 2012; 양미선, 김양은, 2012). 본 연구대상의 특성이 23개월에서 31개월에 해당하는 만3세 자녀를 둔 유아기 초기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결과가 자녀가 1년 미만일 때보다 30-36개월일 때 더 높아진다고 한(Crnic & Booth, 1991) 영아기 초기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기주장이 심해지는 만2세를 넘기고 더 협조적이 되어가는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의 지지적 상호작용을 높이려는 노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소득-취업 집단의 어머니가 높은 소득 집단의 취업이나 비취업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 아동의 발달단계를 반영한 부모와 자녀의 지지적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역할을 하는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난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은 양육스트레스도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의 어머니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부정적 가정환경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자녀발달에도 더 높은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높은 소득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 집단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도구적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이 낮은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거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도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김경혜, 1994; Piff et al., 2010; Ryna & Stipek, 1997) 지지한다고 하겠다.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책임이나 성취기대가 높은소득-취업집단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낮은 소득집단의 부모들이 높은 소득집단의 부모들과 비교하여 자녀발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낮은소득-비취업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나 낮은 가구소득이 모두 자녀발달에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서도 제시했듯이 낮은 소득집단 어머니들의 취업은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어머니와 자녀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Joshi & Bogen, 2007). 이러한 결과는 낮은 소득집단에 대한 여성의 취업대책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순히 취업을 소득증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면 낮은 소득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소득집단의 자녀와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과 비취업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학제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전국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기에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확보했으나 표집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낮은소득-취업 집단의 경우 연구대상이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집단 별 사례수의 균형을 유지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간접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부 변인인 양육책임이나 지지적 상호작용 등은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된 자료이다.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연구도구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와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변인임을 고려한다면 소득이나 취업과 관련된 가치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 연구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의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제공하여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613-622.
- 고윤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6(3), 143-160.
- 김경혜 (1994).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말경, 박혜원 (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와 K-BSID II 수행간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중재효과 탐색.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명순, 김길숙, 손승희, 유정은, 이민주, 이윤선, 조항린, 한찬희 (2010). 저소득, 일반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관련 놀잇감 및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31(4), 61-74.
- 김춘자 (2009).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2011).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중산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1-20.
- 박윤미 (2002).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0), 303-330.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송승민, 송진숙 (2007).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933-944.
- 송연숙, 김영주 (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유아교육**, 16(4), 107-117.
- 신혜경 (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안현숙 (2008). 가정의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영아의 어휘력: 19-30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선, 김양은 (2012). 걸음마가 지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29-247.
- 옥경희, 천희영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 신은주, 나중혜 (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0(3), 165-177.
-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순, 무토타카시 (200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의식과 육아 스트레스: 여성의 취업과 개인지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5(2), 89-110.
- 임세희 (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5-75.
- 임현주, 이대균 (2013). 가구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22.
- 전춘애, 박성연 (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미라, 이방실, 권정윤, 박수경, 강은영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715-728.
- 정안나 (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삼숙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정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놀이신념이 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s: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rke, J., Chandy, J., Dannerbeck, A., & Watt, J. W. (1998). The parental environment cluster model of child neglect: An integrative conceptual model. *Child Welfare, 77*(4), 389-405.
- Cooper, C. E., McLanahan, S. S., Meadows, S. O., & Brooks-Gunn J. (2009). Family structure transition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58-574.
- Crníc, K.,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42-1050.
- Crníc, K.,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ní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3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der, G.H., Jr., Eccles, J. S., Ardelt,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771-784.
- Forgays, D. K., Ottaway, S., Guarino, A., & D'Alessio, M. (2001). Parenting stress in employed and at-home mothers in Ital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27-351.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Gottfried, A. E., Gottfried, A. W. & Bathurst, K. (2002). Maternal and dual-earner employment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The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pp. 207-22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ff, E., Laursen, B., & Tardif, T.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The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pp. 231-25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oshi, P., & Bogen, L. (2007). Nonstandard schedules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among worki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39-156.
- Koen, P. (2014). Financial stress, parent function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pproach to family stress processes in low-, middle-, and high-income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0), 1752-69.
- Kovchanska, G., Kuczynski, L., & Radkr-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1), 56-63.
- Kuperberg, A. (2012). Reassessing differences in work and income in cohabitation an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688-707.
- Lee, C., Lee, J., & August, G. J. (2014). Financial stress,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nderlying processes. *Family Relations, 60*(5), 476-490.

- McBride, A. (1990).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American Psychologist*, 45(3), 381-384.
- Miller, S. A. (1989).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Piff, P., K., Kraus, M. W., Cote, S., Cheng, B. D., & Kei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uff, J., & Renk, K. (2014).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5(6), 712-727.
- Roeters, A., Lippe, T., & Kluwer, E. S. (2010). Work characteristic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The mediating role of temporal invol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317-1328.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2), 323-326.
- Ryna, R. H., & Stipek, D. J. (1997). Economically disadvantaged preschoolers: Ready to learn but further to go.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6-6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liefs and supportive interaction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It also examined variations of the results by household income levels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770 mothers of children aged 23-31 months who were a part of the 2010 wave of the National Survey for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analyses revealed that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mothers' parenting beliefs and supportive interaction. Mothers' supportive interaction has been shown significantly to predict parenting stress in all four groups of this stud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liefs and reciprocal interaction vari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income and work statu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are important to examine collectively.

▶*Key Words* :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liefs, supportive interaction, household income, mother's employment status*

논문투고 2015. 01. 14.
수정원고접수 2015. 02. 06.
최종게재결정 2015. 02. 07.